

익산 '주얼리 임대공장' 이달 말 착공

38억원 예산 확보 제조시설 설치후 10월 말 정상 가동 노동 비율이 높은 산업구조로 많은 일자리 창출 기대

익산시가 주얼리 산업 육성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주얼리 임대공장' 건립사업이 마침내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익산시는 최근 설계용역을 마무리하

고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 패션 단지에 동지를 틀게 되는 주얼리 임대공장은 대지면적 6,914.8㎡를 2개 필지로 분할, 각각의 대지에 연면적 1,200

㎡ 공장 1동씩 신축하며 이달 중 입찰 과정을 거쳐 도급자를 선정해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가 10월 초 준공 계획이다. 임대공장 건립이 완료되면 기존 투자협약을 체결한 공장은 기계·장비 등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공장등록 절차를 거쳐 10월 말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임대공장 입주예정기업 대표들은 중국 청도에서 170여 개의 주얼리 회

사를 가진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 전직(제4대~제5대) 및 현재(제8대) 회장으로 이들 기업의 패션단지 입주는 중국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향후 기업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얼리 산업은 수출유망산업으로 노동 비율이 높은 산업구조인 만큼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농정과 직원들은 4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야면 복교리 소재 경종 농가를 찾아 육묘장 모판 운반 작업 일손 돕기에 나섰다.

영농철 농가 일손 돕기 나섰다

군산시 농정과 직원들 봉사활동

군산시 농정과 직원들은 4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야면 복교리 소재 경종 농가를 찾아 육묘장 모판 운반 작업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번 일손 돕기는 농촌 고령화 및 가용인력의 감소로 영농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말까지 농촌 일손 돕기 지원창구를 운영하며 고령·부녀 농가와 기계화율이 낮고 일시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과수, 채소, 밭작물 재배 농가 등을 중심으로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한 농업인은 "봄철에는 돈을 주고도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바쁜 시간을 쪼개 일손 돕기에 나서준 직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채광석 농정과장은 "군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손이 모자라는 농촌지역에 지속적인 영농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촌 일손 돕기 지원창구를 적극 운영할 것이며 공무원들의 도움이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와 준법지원센터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4일부터 11일까지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 주관으로 드림스타트 및 30개 지역아동센터 총 5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군산시 드림스타트, 아동학대·성폭력 예방교육

특히 올해는 아이들의 학년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초등학교 저, 중, 고학년으로 나누어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 우리는 소중한 존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학습 내용에 대한 퀴즈 등의 내용으로 하여 1시간 동안 진

행된다. 군산준법지원센터 윤희정 계장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학대 받는 아이들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준법지원센터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들 스스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소중한 인격체로서 잘 지라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망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기자

김영배 익산시장 후보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후보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정책을 내놨다. 김 후보는 복지



적이어야 한다"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총 11개의 분야별 복지 세부정책은 유아·아동·청소년·장년·장년·노년 등 생애단계별 보편적 복지와 함께 개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선별적 복지를 병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배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지를 전달하면 큰 부담 없이 살 맛 나는 복지익산 건설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시는 지난달 31일 안전점검 위탁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진행 중인 제일연립(경암동 소재)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군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위탁용역 현장점검

군산시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20년이 경과해 노후도가 심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들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가 가능한 의무관리 단지에 비해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이뤄지기 힘든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31일 안전점검 위탁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진행 중인 제일연립(경암동 소재)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주택행정과장, 용역업체로 선정된 대한주택관리사회회 참여기술자 등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의 용역 진행상황 보고 및 주요 지적사항 현장 확인, 건축물의 기

기, 콘크리트 강도 측정, 균열 폭을 측정하는 계측기 부착 등에 대한 현장조사 현황 점검이 진행됐다. 군산시는 안전점검 용역 중간보고회를 7월중 개최해 중간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9월로 예정된 최종보고회 후 각 단지의 입주민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점검결과 및 안전사고 우려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보강 방법을 통지해 자발적인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노후화로 세심한 주의·관찰이 필요하며 안전사고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노후도가 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18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올해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옥상방수, 용벽위험부위,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보강 등 주거환경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배승철 도의원 후보 '익산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배승철 민주당 화당 도의원 후보(신거구)는 4일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익산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배 후보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사육



가구는 약 600만 가구(전체의 30%)로 반려동물 수는 700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익산시는 그 통계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면서 "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 동물 사육가구 수에 비해 반려동물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제대로 된 놀이터 하나 없는 만큼 시민 공청회를 거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KTX 혁신역 타당성 용역 중단해야"

이강욱 비대위원장 "KTX 역사는 시민 생존권"

이강욱 익산 KTX역사 사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익산 KTX역사 이전 문제에 동조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과감히 낙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익산 KTX역사는 익산시민들의 생존권과 다름없다"며 KTX 혁신역 타당성 용역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익산은 교통문화 도시인 만큼 혁신역 쪽이 낫다고 언급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는 망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산 토박이인 이강욱 위원장은 공군사관학교 19기 출신이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예편 후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이 위원장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익산 KTX역사 사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면서 "이제 익산시민들이 총괄기해 KTX익산역 사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30만 익산시민의 처절한 외침으로 KTX 혁신역 타당성 용역 발주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